안 그래픽스

인쇄 . 싸인 . 디자인 안희탁 스테파노 404-717-9897 ahngraphix@gmail.com

구나영 보험 메디케어,오바마케어,생명보험 새로이 65세 되시는 분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 구나영 아가다 678-665-4228

리 장례식장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 넷 770-622-2525

PIWC Group SB건축&철공 Agency

House 내부수리 일체 철구조물 수리 제작

방성호 크레센시오 678-599-0200

오즈냉동

에어콘, 히팅, 냉동

원동훈 유스티노 770-910-5656



678-910-0884

2628 Pleasant Hill Road #700 Duluth, GA 30096

Suwanee

DUO ORTHODONTICS 스와니 678-482-9434 Tucker 770-939-1280 (주말 예약가능)

전문의 김범수 니콜라오 김보근 알퐁소

Brighter Smiles

470-719-0213

7775 McGinnis Ferry Rd Ste 202, Johns Creek, GA



메디케어/IRA/연금 생명보험 / 오바마케어

한재만 그레고리오 404-272-6157

SMILE 1 DENTAL GROUP

김세희 소화데레사 김상윤 요셉

자동차 . 집 . 사업체 종업원 상해 보험

장인욱 베드로

스마일원치과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203, Suwanee, GA



남상우 시몬 남수진 세실리아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200.



FINANCIAL & INSURANCE

SERVICE

간병인 수시 모집

김경숙 소화데레사 404-457-6703

3120 Crossing Park NW, Norcross, GA 30071 / info@joynuscare.com



RIVERBEND

리버밴드 오토 변대건 안드레아 SONAMOO 404-663-7984 💂 소나무 Auto Repair Office 770-623-5940

3322 Peachtree Industrial Blvd, Duluth, GA 30096



운동상해(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박찬규 레오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배용자 루시아 보험금융

INSURANCE 냉명보험 로렌 배 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모니카) 장기간호보험 자동차/집/사업체/건강 묘추얼펀드

470-282-1654

FARMERS

3775 Venture Dr. #M202



678-665-5400 3720 Davinci Court, Suite#150 Peachtree Corners, GA 30092



Better Homes Hand Gardens. M. 770-912-8282

김옥경 에밀리 부동산 O. 404-843-2500



kW **KELLER**WILLIAMS. 오현정 유리안나 부동산 Juliana OH **678-908-4945**



명품중식 만 천 홍

신자분 5인이상 10% 할인 우대 770-454-5640 매주 월, 화요일은 쉽니다.



VINEYARD REALTY

정승욱 미카엘 변호사

Law Office Of Michael S. Chung,

이민.입양.클로징.상법.유언

교통사고 상해

이종원 미카엘 변호사

무료상담 678-622-8829

jwlee@jwleelaw.com

2174 Pleasant Hill Rd #204C Duluth GA 30096

3483 Satellite Blvd #211S, Duluth (파리바게뜨 맞은편)



·시니어 주택전문 (Seniors Real Estate Specialist) ·사업용 건물 ·토지 조셉 김 678-361-6230

켈리 김 770-634-5646

조앤리 아네스 부동산 678-770-1136 realtorjoanne@gmail.com

Pinehill Realty



오약국

10820 Abbotts Bridge Rd, #240

모든보험 수령 / 저렴한 약값 470-223-4775

오민환 파비아노

Fairway Home Loan

*주택융자 *상업융자 최윤석 융자 404-578-1426

3483 Satellite Blvd Ste 201S. Duluth, GA 30096



GIF†

GOLD · CROSS · REPAIRS ·십자가, 성상 ·성화, 묵주, 책 ·신발수선 ·금, 은, 주문제작 ·티-셔츠 프린팅

성물점 770-614-1738 3255 Lawrenceville-Suwanee Rd. #L Suwanee, GA 30024



TOP 조경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낚기원 요한 404-966-1919

2547 Old Rockbridge Road, Norcross, GA 30071



聞るよくよフレリカーうしょくしょう クーテルトないした 7 140-121-41/19 ロマーゼン C-122-1元 DIE PECKULAN 3016/19

24 4.4

주보 광고 문의 kmccga.jubo@gmail.com

주보 광고 문의 kmccga.jubo@gmail.com

全回ス「 주보



에틀린티 한국 순교지 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NO.2231

2023년 12월 24일

주임신부 구동욱 미카엘 micku@kakao.com | 보좌신부 김성현 라파엘 raphaelkimsj@gmail.com 사목회장 남현석 요셉 Email: josephnam2011@gmail.com Tel: 770.827.9987 전화 770.455.1380 | 팩스 770.455.4262 | Email kmccga.office@gmail.com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URL http://www.kmccga.com



대림 제 4주일

입당: 92 **봉헌:** 216

성체: 165/163

파견: 96

사무엘기 7.1-5,8-12,14,16 다윗의 나라는 주님 앞에서 영원할 것이다.



로마서 16.25-27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가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알렐루야.

성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루카 1, 26-38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청년미사(로) 5:30pm 아침미사 8:30am 교중미사 10:30am

영어미사 12:15pm 평일미사

화요일, 금요일 12:00pm 수요일, 목요일 7:30pm

월간미사

성모신심미사 첫째주 토요일 12:00pm

- ◆ 고해 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 성시간: 목요일 저녁 미사 후 ♦ 사무실: 일요일 7:00am-3:00pm
 - 월요일 휴무 화-토10:00am-6:00pm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루카 1,26-38)

기대

배영길 베드로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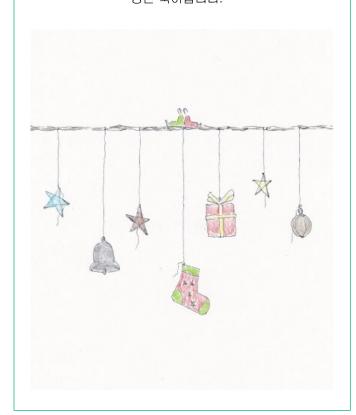
그 때 그 때는 이날이 오기를 날을 세며 기다렸다.

> 기대를 갖고, 설렘을 안고.

오늘 오늘은 그 어딘가에 남아있을 그 기대와 설렘을 찾아.

누군가와 나누고 싶습니다. 성탄이니까요.

"성탄 축하합니다."



오늘 복음은 가브리엘 대천사와 마리아의 대화를 들려줍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로 시작되는 가브리엘의 인사에 마리아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답합니다. 이 응답은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겸손되이 받아들이고 응답한 마리아의 순종은 세상 구원의 새벽을 알렸습니다.

지난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미사의 제1독서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나는 너와 그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창세 3,15). 교부들은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하느님께서 뱀에게 내리신 이 판결을 오히려 세상 구원의 첫 복음으로 식별합니다. 하와의 불순종으로 막혔던 세상 구원이 마리아의 순명으로 다시 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은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온 세상의 구원은 마리아의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응답에서 시작하여, 그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루카 22,42) 하신 기도로 완성됩니다. 곧 이어질 주님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세상 구원의 완성을위하여 마리아와 같은 기도를 바쳐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박기석 사도 요한 신부)

역대 교황들의 가르침 안에서의 대릮

비오 12세 교황 "예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비오 12세 교황은 대림시기에 "거룩한 전례는 우리 영혼을 거룩한 성탄을 열렬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도한다"고 강조했다. 1952년 12월 7일 비오 12세 교황은 예술 노동자 협회의 책임자 및 회원들을 만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류가 때때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하며 위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인류 구원에 가까이 계십니다."

성 요한 23세 교황 "대림은 베들레헴의 광채"

1962년 12월 2일 성 요한 23세 교황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아낌없이 기도한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별안간 세상을 떠 날 수도 있다고 위협했던 건강 상태가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림이 "베들레헴의 광채, 거룩한 성탄의 광채"라고 말했다.

"오늘 거룩한 대립시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우리 어머니이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빛 안에서 성모님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 모든 것이 벌써 베들레헴의 광채, 거룩한 성탄의 광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부터 기쁜 대립시기를 보내기 바랍니다. 모든 이와 온 세상을 위한 선과 기쁨과 평화의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와 온 세상을 위한 선과 기쁨과 평화의 시기가 되기들 바랍니다."의미 있고 애정 어린 말로 모두에게 보내는 교황의 축하의 말이다. 「바티칸 뉴스」가 마련한 특집 '더블 클릭 에피소드' 게스트인 신학자 루이지마리아 에피코코 신부는 이를 두고 "달콤하지는 않지만 인생의 쓴맛 아래좋은 것이 감춰져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말"이라며 "늘 있어 왔지만 때때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좋은 것을 밖으로 꺼내는 건 성탄을 위한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했다. 요한 보스코 성인이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젊은이는좋은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다. 성 요한 보스코는 "가장 좋은 태도는항구함"이라며 "선이 존재하되 숨겨져 있다고 악착스럽게 믿으며 끈질기게 그것을 찾는 태도"라고 설명했다. "그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단순히 인류를 선과 악으로 나누는 것으로 만족해야할 것입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 "주님을 위한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성탄 준비는 세속적인 준비만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도 신앙과 이웃사랑의 영적 준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1966년 12월 4일 삼종기도에서 그는 성탄이 "인간의 자비와 종교적 자비"의 잔칫날이라고 강조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이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나요? 그렇습니다. 성탄은 모든 이가 기뻐하고 기대하는 잔칫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탄 준비'에는 세속적인 준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과 이웃사랑의 영적인 준비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대림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와 보속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찾으며 주님을 위한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탄은 모든 이에게 행복한 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성탄은 자비의 축제입니다. 곧, 인간의 자비와 종교적 자비의 잔칫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십시오. '너희 집은 성탄 구유를 마련했니?'"

따라서 신앙과 이웃사랑이 함께해야 한다. 에피코코 신부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을 전하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다소 슬픈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그분께서 세상에 오시는 밤을 아무도 반기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세상의 변방이라고 부르시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성탄을 지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무의미합니다. 이웃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도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기다리는 동안 기쁘게 깨어 걸어나가도록 합시다"

대림시기에 "해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새롭게" 해야 한

다. 1998년 대림 제1주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 시기를 기쁘게 살라고 권고하며 이 같이 말했다.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곧 하느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때를 기억하며 기쁘게 깨어 있도록 합시다. 깨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대림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역사 속에 위치하면서도 역사를 넘어서는 사건을 기다립니다. 그 일은 예년처럼 주님의 성탄 대축일 밤에 일어날 것입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나중에 동방박사가 올 것입니다. 이 둘은 어떤 의미에서 온 인류를 상징합니다. 오늘 전례에서 울려 퍼지는 권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뻐하며 주님을 만나러 가자'는 말이 모든 나라, 모든 대륙, 모든 민족과 국가로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삶의 핵심어는 가정이다. 에피코코 신부는 "의미 있는 관계가 없다면 인간의 삶도 없다"며 "이것이 가정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누군가의 옆에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거쳐야 좋은 것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 "기다림은 현재를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기다림의 시간, 대림시기를 어떻게 지내야 할까? 베네딕토 16세 전임교황은 "기다림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9년 11월 28일 대림시기를 시작하는 대림 제1주일 제1저녁기도 에서 "시간이 의미 있는 현재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기다림은 견딜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에 의미가 부여되 고 매 순간 구체적이고 유효한 것을 인식할 때마다 기다림의 기쁨 은 현재를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선물이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현재를 강렬히 살아가게 합니다. 희망찬 미래에 빛을 비추는 현재를 살아냅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대림시기는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돌아가 참된 기다림의 의미를 우리 안에 다시 일깨우는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오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성경 안에서, 전례 안에서, 성인들 안에서, 일상생활의 사건들 안에서, 모든 피조물 안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모습은 여러 가지 사건의 이면에 계시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종 각자의 최고의 추억은 가족과 연결돼 있다. "기억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에 단호하고 담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기억은 후자의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둠을 통과하려고 빛을 기억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깨어 기다립시다!"

"너희의 주인이 오실 것이다"(마태 24,42 참조).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2년 11월 27일 대림 제1주일 삼종기도 훈화를 통해 "바로이 말씀이 우리 희망의 기초이며,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를 지탱해 준다"고 말했다.

"대림시기 동안 우리의 나태함을 떨쳐버리고 잠에서 깨어나도록 합시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알고 있는가? 나는 깨어 있는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가? 나는 일상적인 상황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사에 정신이 팔려 있는가?' 오늘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에 그분께서 다시 오시더라도 우리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오시길 기다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길 기다리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다리도록 합시다."

번역: 김수현/ 바티칸 뉴스 https://www.vaticannews.va/ko.html

본당 소식 집례 & 교리

주일학교 교사 미팅 주일학교 PTA 점심 준비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두 분 신부님과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PTA에서 1학기 마지막 수업날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친교를 위해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교사 영성 갓의 한 자리에 모여 한학기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수고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HARITY MASS BIBLE 스낵백 작업 자선 주일을 맞아 아이들이 스낵백 (213개)을 만들고, 학부모님께서 도 네이션해주신 물품들을 St. Vincent port Center에 도네이션 했습니다. 수고해주신 선생님들과 도움주신 학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1학기 마지막 수업 수고해주신 선생님들과 매주 아이들 라이드를 제공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순명 <성모영보>



〈성모영보〉 1472, 목판에 유채화, 90 x 222 cm

인류 최고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1452 탈피해 당당한 여인으로 창조되었다. 등을 곧게 편 채 고개를 -1519)의 는 피렌체 외곽 몬테 올리베토 (Monte Oliveto)의 똑바로 들고 가브리엘을 향하는 올 곧은 시선의 마리아는, 상대 산 바르톨로메오 수도원 (San Bartolomeo)의 측면 제단화로 방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바닥에 두었던 당대 여인의 덕 제작되었다. 주문자를 알 수 없는 그림은, 문예부흥기의 꽃을 목과 예의에서 벗어나는 태도이다. 그녀는 침착하고 안정된 모 피운 메디치 가문의 집무실이었던 오피스라는 의미의 우피치 미 습으로 사적인 공간을 침범한 천상의 전달자를 마주보며 화면 술관으로 1867년에 이전되었다. 호모 우니 베르살리스(Homo 을 주도적으로 이끈다. 동정녀는 어머니와 아내로 제한된 여인 Universalis), 만능 인간으로 하느님이 인류에게 내린 위대한 의 역할에서 독자적인 새로운 여성으로 탄생한다. 인류 구원의 선물 다빈치의 완성작은 20여점 남짓이다. 그는 유명한 공증인 대명제를 받는 장소 또한 은밀하게 닫혀진 실내가 아니라, 환히 의 사생아로, 견습생으로 도제생활을 시작해 스승 베로키오의 게 공개된 자연의 열린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오른손으로 독서 능력을 넘어서며 개인 공방을 차리던 20세에 그린 작품이다. 성 대 위에 펼쳐진 성서 페이지를 정확하게 짚은 동정녀는, 말씀에 모영보로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일대기는 그리스 신화와 함께 순종하는 의미로 왼손을 올린다. 대천사의 전언을 의심 없이 수 서양 미술사의 핵심이자 중심축이다. 관람객은 이사야서(7,14) 용한 마리아 주위를 감싸는 포근한 빛은 성령의 빛으로 선택 받 와 루카복음서(1,38)에 서술된 대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에게 은 특별한 여성임을 환기시킨다. 관람객은 인간으로 오시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느님의 예언 리스도와 마리아를 통해 인간중심의 인문주의를, 부활을 읽는 을 전하는 순간의 목격자이다.

다빈치는 오른편 가브리엘 천사와 위편 동정녀 마리아라는 도 성모영보는 시대적 신앙적 산물로 매우 명확하게 당대의 공간 식적인 구성은 따랐으나 흔히 등장하는 성령의 금빛 줄기나 비 적 시각적 이미지를 지배한다. 가톨릭 교리에서 마리아는 단지 둘기는 생략하였다. 그가 선택한 천상의 과업을 시작하는 장소 하느님의 아들을 낳기 위해 택한 여성이 아니다. 동정녀의 숭고 는 당대 피렌체의 사실적인 풍경 속의 정원이다. 나무들이 무성 한 잉태와 평화로운 수용으로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은 시작된 한 고즈넉한 정원의 둘러진 담은, '그대는 닫힌 정원, 나의 누이 다. 그녀는 천상과 지상의 매개자이자 직접적인 책임자로서 중 나의 신부여(아가서4:12)'를 은유하며 마리아의 순결을 의미한 대하고 독특한 임무를 수행하며, 하느님과 인간의 중재자로 지 다. 지상에 막 도착하는 듯 올려진 날개의 대천사가 무릎을 꿇 상의 인간을 대변한다. 마리아는 메시아의 어머니이며 인류 구 고 바치는 백합 또한 순결한 동정녀의 상징으로, 무염시태를 거 원의 어머니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해 역사상 가장 많이 반복 듭 강조한다. 독서대 앞에 앉아 성서를 읽던 마리아는 의연하게 적으로 그려진 여인이다. 다빈치의 육화된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브리엘을 맞는다. 다빈치는 천사를 제외하고는 초월적 초자 는 천재적 재능을 드러내며 콰트로첸토 대중들의 이목을 사로 연적 모든 요소를 배제하고, 현실적 공간에서 교감하는 두 인물 잡는다. 관람객은 인류 최고의 천재가 창조한 영원한 모상인 동 의 심리적 상호 작용에 치중한다. 관람객은 대기원근법으로 처 정녀 마리아와 함께 구세주를 기다리는 대림을 공유한다. 리한 3차원의 깊숙한 풍경에서 환상적인 공간을 경험한다.

다빈치의 동정녀는 순종과 겸손을 강조했던 수동적인 모습에서

<이순희 아녜스> 미술 평론가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3년 12월 17일 (대림 제3주일)

교중미사(10:30am)… 아침미사(8:30am)…	270명 99명	주일헌금 ······ 교무금 ·····	\$4,950.00 \$13,083.00
영어미사(12:15pm)···	104명	감사헌금	\$ 1,000.00
청년미사(5:30pm)…	59명	불우이웃돕기	\$.00
미사참례 총	532명	성물방	\$ 73.00

교무금 명단

강귀선(8~12)	박남철(12)	서정민(12)	유명한(12)	천병호(12)
김경숙(12)	박연순(12)	소종선(12)	윤성진(12)	최순례(12)
김영철(12)	박재현(12)	손칠영(12)	은혜영(9,10)	태영훈(12)
김영홍(11,12)	박정애(12)	송용덕(12)	이기산(1~12/23)	한재만(12)
김이순(12)	박평하(12)	신옥기(12)	이상호(12)	한찬욱(12)
김현길(12)	박해영(12)	심재숙(11,12)	이수진(12)	홍남식(12)
김호진(12)	방남규(11,12)	오상수(10)	이승구(12)	
나영숙(12)	배정희(12)	오상완(12)	전근섭(12)	
남현석(12)	변재중(6/23~1/24	l) 오영택(10~12)	주옥녀(12)	
박근우(12)	서미영(9~12)	유경애(10~12)	지혜정(12)	

교무금 월 약정자

강규상	김영철	민주미	백현숙 U도미	심호용	윤석진 오서지	이홍규	최문영
강성태 강용조	김영홍 김원봉	박근우 박남준	서동민 서미영	안금환 안승범	윤성진 이건수	이홍철 장민재	최양숙 최영갑
고창민	김일환	박남철	서상희	양경직	이경우	장해선	최옥란
곽흥배 김 훈	김주희 김진용	박두환 박두환	서용원 서재욱	양경환 양국일	이동춘 이복화	전 홍 전근섭	최지남 한성인
급 준 김경숙	검선공 김태규	탁미쉘	시제국 서혁규	양재준	이목화 이봉조	전용희	한춘하
김남우	김향순	박송자	석대진	오경옥	이석균	정승욱	한혜선
김대용	김현길	박영자	석대진	오규형	이성철	정용선	허민환
김루시아 김면기	김호수 김홍섭	박재석 박재영	설재규 성정창	오상수 오현정	이수진 이승구	정지윤 정창래	허성일 홍동욱
김미자	김희연	박정□	소종선	왕복실	이종길	조보현	홍서훈
김미혜	나창섭	박종흠	손영덕	원동훈	이주미	조성환	홍영기
김루시아 김봉섭	남기원 남상우	박찬규 박평하	손칠영 송경자	원용방 유경애	이창호 이준복	조소춘 지승남	
김상순	남현석	박영택	송무남	유선아	이현두	차영수	
김성강	문명재	배광욱	송용덕	유성열	이현두	천병호	
김세경 김영길	민병선	배용자 배정희	송창률 심충섭	유영한 유중현	이현옥 이홍규	최동순 최문석	
002	민수종	메잉의	그중심	ਜ਼ਿਲ਼	미승규	의군역	

교무금 새로 약정 하신 분

강비호 민수종 심재숙 이은경 차유경 홍남식 김덕자 박경미 오명혜 이창욱 최규복 홍상진 김용준 박병호 오재찬 이치선 최혜민 김용학 서영범 우장희 임용택 한규빈 도한의 석영길 윤지영 임재형 한규항 문쌍국 스티브조 이동선 장윤아 한찬욱

교무금 약정하신 분중에 신자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자번호를 받으시 기 바랍니다.

본당 방역지침 변경 안내

- 1. 마스크 착용은 자율
- 2. 미사중 응송 가능
- 3. 고해성사는 사제 사무실에서
- 4. 성수는 운용하지 않으며, 비치된 Sanitizer는 그대로 운용
- 5. 미사 관면이 가능한 경우(애틀랜타 교구청 지침)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 코비드 양성반응자와 접촉하였거나, 증상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
- CDC가 분류한 고위험군에 포함된 경우(노약자)

2023년 AA 기금 납부 현황

2023년 12월17일 (대림 제3주일)

교구 할당액	\$ 44,200.00
달성률	121.5%
약정액	\$ 35,790.00
누계 납부액	\$ 53,717.00
금주 납부액	\$ 1,955.00

2023 AA 기금 납부자

김상순	배정희	이국진	이승구
민수종	변재중	이기산	최인영
박재현	소종선	이상엽	
박해영	손칠영	이수진	

금주 후원금

감사헌금 익명

ਨ 교무금/ AA 기금 약정/ 봉헌 안내

- 교무금 약정서를 사무실로 제출
- **교무금** 내실 때 월 표시, 이름, 신자번호를 기재

전례 봉사

- 2023년 **AA기금 약정**도 사무실에 문의
- 온라인 봉헌시 이름, 신자 번호, 봉헌 내역 기재 • 생미사, 연령미사 봉헌은 우편으로 미리 보내

시기	바랍니다.	

근데 6시				
날짜	해설	독서	복사	
12/23(토) 오후 5:30				
12/24(일) 오전 8:30	서정원	이영숙 원선미	양다원 소현서	
12/24(일) 오전 10:30	이숙자	이국진 이정란	박채효 박시현 이제후	
12/24(일) 오후 12:15	SaraPark	오준현 정범진	안상우 홍지아	
12/24(일) 오후 8:00	이경환	김대용 김월수	장재은 성리디아 감배투 박시윤 오준서 김민지 이윤후 김서중 김소현 허혜지 현예성 허수 인	
12/25(월) 오전 10:30	김위나	최창희 김선민	박채효 남소호 최예은 전지우 이주현	
12/30(토) 오후5:30				
12/31(일) 오전 8:30	백1쉘	오영숙 김선민	안상우 양다해	
12/31(일) 오전 10:30	이경환	김대용 김월수	소현서 양다원 홍지아	
12/31(일) 오후 12:15	김태훈	양다현 오준현	박시현 이제후	

본당 캘린더

12월 22일~25일 • 대림특강

🥑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안내

- •12월 24일 (일) 오후 8시
- •12월 25일 (월) 오전 10시 30분

12월 24일 주일 미사는 평소대로 봉헌됩니다.

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안내

•1월 1일 (월) 오전 10시 30분

기사무실 휴무 일정

•12월 25일 (월) 오후 1시 - 12월 28일 (목)

🤰 주차 통제 안내

- 1.구 진고개 식당이 위치한 몰에 주차를 금지 합니다. 상가측에서 상가를 이용치 않는 차 량이 주차시 견인조치 한다고 합니다.
- 2.성당내 아랫쪽 주차장과 윗쪽 주차장 사이 언덕길에 주차하지 말아주십시오.
- 3.주차 공간이 부족할 시에는 인터네셔널 몰 주차장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 2차 헌금

- Catholic Charities
- •일시:12월 24일(일) 8:00pm/ 25일(월) 10:30am

망치회 김밥,컵라면 판매

- **일시**: 12월 24일(일) **| 장소**: 친교실
- **문의**: 원동훈 770 910-5656

성모회 전신자에게 점심 제공

•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 루가 의료 봉사회 진료 안내

• 일시: 1월7일(일) 12:30pm~2:30pm, 소성당 • 진료 과목 내과: 지승남



산부인과: 이길종 비뇨기과: 전홍

치과: 최예은 (전 연령 가능) • **문의**: 서병익 706-583-4096

- ▶ 성루가의료 봉사회 자원 봉사자와 진료를
- 해 주실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다음진료는 3월3일 일요일

2024년 매일 미사책 신청

- **일시**: 일요일 미사후 **| 장소**: 친교실 • 1년 구독료: 90불
- **문의**: 사무실 770-455-1380

성모회 잡곡 판매

• **일시**: 교중미사후(일) **| 장소**: 친교실 참기름, 들기름, 도토리국수, 미역, 다시마, 나물 등등..

사회복지분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병중에 게신 교우분들이나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서 방 문을 원하시거나 또 주위에 방문이 필요한 교우분들이 계시면 사회복지분과로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의: 박정미 로시타 901-832-3306

본당 알림

- •성가대원 및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무의: 이정란 안젤라 770-401-5374
- •장례 미사 및 연도 요청은 연령회에 연락바랍니다. 문의: 이수진 브렌다노 404-933-8233
- •혼인 성사를 요청하는 경우 6개월 전에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보관 중인 연도책은 사무실로 반납 바랍니다.

2023 대립특강

일 자	강 론	주 제
12/22 (2 12:00 pr		- 기누는 피이배셔이 진출
12/23 (<u>5</u> 5:30 pm		하느님을 만나는 인간 (마르코 복음을 중심으로)
12/24 (§ 10:30 ar		지구별에 오신 아기 예수님
12/25 (§ 10:30 ar		

◉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 준비합시다.

2024년도 로사리오 평생 대학 새학기 등록

- •등록 일시:12월17일부터
- •등록 **장소**: 친교실/성당 사무실
- STE •**새학기 개강일**: 2024년 1월 10일
- •**문의:** 이숙자 크리스티나 678-665-3882 서미영 아네스 404-610-0057

2023-2024년도 KMCC 주일학교 등록

- • 등록대상: Pre-K ~ 12학년 등록원서
- 수업기간: 8월20일~12월17일(16주간)
- 등록비(일년): 1인 \$100/ 둘째 \$90/ 세째 \$80
- 문의: 이진화 로마나 770-572-4000

kmccga.youngadult@gmail.com

2023-2024학년도 대건 한국학교 등록

- 등록대상: Pre-K(만4세) ~ 12학년
- **수업기간**: 8월12일~12월9일(16주간)
- 수업내용: 한국어, 한국문화/역사
- 특활수업: 미술, 태권도, 동요, 무용, 서예, 난타
- **문의**: 노시현 네오미시아 678-677-3515

kmccga.DaegonKoreanSchool@gmail.com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 중에 계신 분들 김미영(인덕마리아) 이기산(스테파노)

김원봉(대건 안드레아) 류앵례(세실리아) 민병숙(라파엘라) 박덕자(빅토리아) 박정자(데레사) 박줄리(히야친단) 박평하(요한) 안정주 (소피아) 유옥희(모니카)

이금숙(세실리아) 이수진(브렌다노) 조갑득(마리아) 조경희(글라라) 채종현(아오스딩) 최대일(프레드릭) 최순례(아나타시아)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견진을 받으실 분들을 위해

2023년 신자 재교육

그리스도의 사랑

- 주제: 요셉(마태 1,18-25)
- **장소**: 소성당
- **문의**: 이혁륜 모니카 404-518-7373

2023-24년도

성인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 가톨릭 신앙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접수**: 사무실
- 수업기간: 2023년 9월10일

-2024년 3월31일(부활절)까지

- **수업시간:** 매주 주일 9:00am-10:15am
- 수업외 일정: 본당 입교식,선발식,수도원 방문 일일피정, 세례 견진 성사, 환영식
- **문의**: 나상숙 스콜라스티카 678-933-7313

고등부 겨울피정

Youth Group 2024 Winter Retreat

- When: 2.16 (Fri) 2.18 (Sun)
- Where: Glisson Camp and Retreat Center
- Cost: Early Registration (12/10 ~ 12/17) \$175
- Regular Registration (12/18 ~ 1/21) \$195 • Contact: Si Lee 678-779-0923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행사

다가오는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행사에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년 세례를 받으실 분들과